

0822(월) 예레미야 51-52장 죽음의 날, 구원의 날

52장은 남 유다, 예루살렘의 최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.
열왕기하 24-25장에도 동일한 내용들이 등장하지만,
예레미야서만이 지닌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. 김근주, 특강 예레미야

❶ 예루살렘의 멸망과 참상들이 강렬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.

왕과 신하들, 도성의 마지막이 훨씬 상세하게 소개되며(39:1-4),
특히 시드기야의 최후는 여기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(52:11,겔12:13 참고).
예레미야서는 **불순종한 자의 말로**를 분명히 보여줍니다.
하나님의 경고가 현실이 되었습니다(34:21).

❷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 <가난한 자>가 언급됩니다(52:15).

바벨론은 포도원과 농사를 위해 비천한 자들을 남겨두었지만,
이는 성 밖에 살던 빈민들이었습니다(52:15-16,왕하25:11-12).
하나님의 경고와 예언을 들었던 예루살렘 성 사람들은
누구도 예외 없이 죽거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.

❸ 탈취당한 성전 기물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(52:17-23).

바벨론은 기동으로부터 장식까지 모두 가져갔습니다(52:17-23, 7장, 26장 참고).
일부 약탈되었을 때에는 거짓 예언에 마음을 빼앗기고(27:16-22),
회복을 꿈꾸기도 했으나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.
그럼에도 완전한 약탈과 붕괴는 끝인 동시에 시작입니다.
헛된 기대를 끊고 새 역사로 직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

❹ 세세히 기록된 포로들의 숫자도 마찬가지입니다(52:28-30).

3차에 걸쳐 총 4600명의 포로들이 붙잡혀 갔습니다(52:30).
하나님이 말씀하신 **심판과 멸망**이 완결되었습니다.

이제는 회복과 새 일이 시작될 시간입니다(52:31-34)

모든 것의 끝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니까?

- ❶ 나의 죄와 실패들을 철저히 인정합니까?
- ❷ 헛된 기대를 완전히 끊고 새로운 역사로 직진합니까?